

10. 7 하마스 테러 공격의 성격과 유대교 율법적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의 응전 *

| 신성윤** |

Shin, Seoung-Yun

A Study on the Nature of Hamas Terror Attack and Israel's Responses in the Light of the Jewish Law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ongoing conflict between Hamas and Israel from a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 It will focus on Hamas' terrorist attack in 10. 7 and on Israel's large-scale response to that. It will try to clarify the nature of Hamas attacks on Israel and analyze the logic of Israel, which declares to be a Jewish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Jewish law. Israel's responses are understood to be based on the logic of vendetta, redemption of captives. Hamas' hostile policy toward Israel is ultimately understood to have the nature of

* 본고는 2024 년 6 월 15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하마스 테러 공격과 이란 공습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전: 유대교 율법의 관점에서"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을 밝힘.

**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임강의교수. E-mail: yunandruth@hanmail.net



racial Antisemitism. The question of Hezbollah in 10.7 Hamas attack and the perspective and logic of Hamas are open for further studies. By comparing the positions of both sides, we will be able to make better judgments and assessments of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Hamas.

[Key Words: Hamas, terror attack, Israel, Jewish Law, antisemitism]

I. 들어가는 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은 이스라엘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발발했고 이스라엘의 응전은 하마스가 예상하지 못한 규모로 전개되었다.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이어진 이스라엘의 보복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관찰과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1987년 웨스트뱅크에서 발생한 1차 인티파다(انتفاضة)가 그 기점이 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갈등은 한 무장 정파와 주권국가 간의 다툼이었지만 국가 간 충돌에 버금가는 지역 분쟁의 양상으로 발전되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대치와 갈등을 다룬 관찰과 연구는 일상적 시사 보도에서부터 학자들의 심층적인 분석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¹ 대표적으로 장지향과 성일광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파타-하마스 주도권 경쟁 및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이란의 갈등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론 분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했다(장지향, 성일광, 2023).

본고는 최근 휴전 협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영토 확장이나 자원 확보나 이데올로기의 전파나 특정한 종교적 신념의 표현을 넘어서는 듯이 보이는 이 지역 분쟁의 이면에서 충돌하는 세계관과 논리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의

¹ 예를 들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1243> (검색일: 2024. 8. 14).

성격을 규명해 보고 유대 국가를 천명하는 이스라엘의 응전 논리를 유대교 율법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

먼저 ‘하마스의 테러 공격’이란 표현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 이 표현이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응전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부연할 필요가 있다. 전쟁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의가 있지만 오늘날의 보편적인 정의는 한 주권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선전포고와 함께 군사력을 동원하는 국가적 무력 행위일 것이다. ‘전쟁’을 언급할 때 상기하는 국제적인 동의가 있다. 국제사회는 1864년에서 1949년까지 네 번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제네바 협약’을 완성했고 196개국이 이에 가입하고 있다. 제네바 협약은 기본적으로 “전투의 범위 밖에 있는 자와 전투 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도의상의 요청에 의거하여 부상병·조난자·포로·일반 주민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이다.”² 테러는 전쟁과 다르다. 고전적 의미의 ‘테러’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정치적 억압과 폭력의 정책”이었다.³ 하지만 오늘날의 테러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테러를 정의하는 가장 큰 요소는 ‘민간인’에 관한 부분이다. 미국의 국가기관과 법 조항은 ‘민간인 목표에 대한 폭력’을 테러로 규정한다. 테러에 대한 UN의 정의는 민간인을 상대로 하여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거나 인질로 잡는 등의 위해 행위와 관련된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죠슈아 골드스타인(Joshua Goldstein)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² https://ko.wikipedia.org/wiki/제네바_협약 (검색일: 2024. 4. 19).

³ [https://en.wikipedia.org/wiki/Terror_\(politics\)](https://en.wikipedia.org/wiki/Terror_(politics)) (검색일: 2024. 4. 19).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정치적 폭력”으로 테러를 정의한다.⁴

14 개월을 넘어 이어지는 본 사태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으로 야기되었다. 하마스의 기습은 육상과 해상과 공중을 통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마스가 선전포고 없이 감행한 무력 행사였고 그 공격 대상은 가자지구 국경을 경비하던 이스라엘 군에 제한되지 않았다. 당일 벌어진 하마스의 공격은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들을 향한 의도적인 살상 행위였으며 특별히 성폭행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⁵ 심지어는 자신들과 동일한 아랍어를 구사하는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시민들도 하마스의 학살 행위를 피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하마스의 군사작전 곧 전쟁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적 테러였다.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을 뜻하는 *حركة المقاومة الإسلامية* [하르카투 알무카와마티 알이슬라미야티]의 두문자어(頭文字語)로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정파이다. 아랍어 *حماس* [하마스]는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חמאס* [하마스]로 알려진다. 같은 소리로 들리는 히브리어 *חמאס* [하마스]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어휘로 폭력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단어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어이다.⁶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점령 통치를 받아오던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1987년 점령 20년 만에 대 이스라엘 무장봉기(제1차 인티파다)를 일으키면서 셰이크 아흐마드 야신(*الشيخ أحمد ياسين* 1936-2004)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초기 하마스는 요르단강 서안지역과 가자지구 및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2009년 7월 하마스 지도자

⁴ <https://namu.wiki/w/테러> (검색일: 2024. 4. 19).

⁵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19284.html (검색일: 2024. 12. 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119> (검색일: 2024. 12. 28)

⁶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חמאס*)가 땅에 충만한지라” (창세기 6: 11); “주께 서... 나를 강포한 자(*חמאס*)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시편 18:48).

칼레드 마샬(خلاد مشعل)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이스라엘 귀환 권리와 동 예루살렘 수도가 보장된다면 하마스는 1967년 국경을 기초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결의안을 위해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⁷ 200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선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적 공존, 즉 ‘두 국가 해결책’을 지지하던 기존의 집권여당 파타(فتح)를 누르고 승리했다. 하마스의 총선 승리는 파타와의 권력 투쟁으로 이어졌고 무력 충돌 끝에 파타는 요르단강 서안지역을 그리고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통치하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하여 미국의 주도로 1993년 시작된 오슬로 협정은 성공적인 결말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이어진 일련의 협상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합의 도출의 마지막 기회로 보였던 클린턴 대통령 주도의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협상도 실패로 돌아갔고 독립 국가를 기대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좌절은 깊어 갔다. 그 해 9월 이스라엘의 강성 우파 정치인 아리엘 샤론 리쿠드 당수가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방문하면서 소요를 야기했고 그 소요는 제2차 인티파다로 이어졌다. 근 5년 간 이어진 제2차 인티파다로 이스라엘 측에서 천여명, 팔레스타인 측에서 삼천여명이 테러와 이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사망했고 양측 모두에서 수 만명이 부상을 입었다. 팔레스타인 측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2002년부터 요르단강 서안지역과 이스라엘 본토를 분리시키는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일방적인 가자지구 철수를 결정했다. 가자지구 내의 21개 이스라엘 정착촌을 해체하고 약 8천 명의 민간인 정착민 그리고 군인을 가자지구 바깥으로 퇴거시켰다. 하마스의 가자지구를 통치는 이런 배경과 문맥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가자지구 안에서 이스라엘 영토로의 공격은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2006년 이전부터 있었다. 2001년부터 가자지구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인근 지역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야기했다.

⁷ <https://ko.wikipedia.org/wiki/하마스> (검색일: 2024. 5. 2).



이스라엘 국민들의 일상에도 큰 혼란을 가져왔다.⁸ 2005년부터는 미사일 외에 박격포 공격이 시작되었다. 2017년까지 가자지구로부터의 공격은 총 18,928회 일어났고 이로 인해 72명이 죽고 4,440명이 부상을 입었다.⁹ 가자지구로부터의 공격은 이미 20년을 넘었지만 지난 10월 7일 하마스 공격이 달랐던 것은 그 방식과 피해 규모였다.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그것은 50년 만의 충격이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으로 시작된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을 백척간두로 내몰았고 그 사태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뇌리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욘 키푸르 전쟁이 발발한 지 만 50년 만에 그와 유사한 전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형태의 국토를 가진 이스라엘은 ‘전쟁의 중심’이 없는 편에서 자국 영토 안에 전장이 형성되면 승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남북으로 424 킬로미터에 걸쳐 있지만 동서로는 가장 넓은 지점이 114 킬로미터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은 일부 지역에서 동서간의 폭이 불과 10 킬로미터에 불과하다. 1982년 레바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18년간 남부 레바논을 점령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도 헤즈볼라와의 충돌이 이스라엘 영토 안이 아니라 레바논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하마스가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영토의 상당 부분을 일시적으로 직접 점령한 것이다. 22개의 소도시와 키부츠와 마을이 점령당한 가운데 약 1200명의 이스라엘 국민이 학살당하고 250여명이 납치되어 가자지구 안으로 끌려갔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948년 건국 이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형태의 테러 공격이었다.

⁸ http://news.bbc.co.uk/2/hi/middle_east/7818022.stm (검색일: 2024. 5. 2)

⁹ https://he.wikipedia.org/wiki/לְיִשְׂרָאֵל_עַד_מְרֻצוֹת_רִקְטוֹת_שִׁנוּר_רַקְטוֹת_מְרֻצוֹת_עַד_לְיִשְׂרָאֵל#cite_note-
של_סיקור_BBC_2009-1-ב (검색일: 2024. 5.2.)



III. 하마스 테러 공격의 성격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하마스의 목표는 그들의 정강을 따른 것이다. 아흐마드 야신 중심의 하마스 설립자들이 1988년 8월에 발표한 하마스 헌장은 장기적인 무력 투쟁 전략을 통한 이스라엘 제거를 천명한다. 2017년 하마스는 헌장 일부를 수정하는 정책 노선도 발표했다. 하마스는 “강에서 바다까지”(من النهر إلى البحر) 즉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모든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최우선적 의무로 제시하면서도 팔레스타인 전체의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1967년 팔레스타인 영토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 안에 동의할 의향이 있음을 비쳤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진일보한 입장을 하마스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태도를 고려한 기만적 행위로 이해했다. 이스라엘 영토를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전역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와 1967년 국경선에 의거하여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입장은 양립될 수 없어 보인다. 1967년 국경에 근거하여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요구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차지하겠다는 목표의 역사적 정당성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전의 이 지역 아랍인들은 한번도 팔레스타인 땅에 자신들의 국가나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실체를 가진 적이 없었다. 16세기 초반 이후 팔레스타인은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오스만의 통치가 끝난 1917년부터는 영국의 신탁통치를 받는 점령지역이었다. 영국의 신탁통치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랍 무슬림들과 아랍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이 함께 거주해오던 땅이었다.¹⁰ 오스만 제국 통치 기간 동안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 분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¹⁰ 이스라엘 건국 이전 시기에 출간된 Encyclopedia Britannica의 “Palestinians” 항목이 이를 설명한다.



확인되지 않지만 400년 기간 내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는 대략 수십만 정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¹¹ 이 지역의 현재 인구가 약 1500만명으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대략 반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수세기 동안 세 유일신 종교의 성지라는 것을 빼놓고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변방이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 증가는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일어난 시온주의 운동으로 유대인들이 고토 귀환(עליה 알리아)을 시작하면서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19세기 말 시오니즘 운동 이전에도 주요 4개도시(예루살렘, 헤브론, 세겜, 사페드)에서 유대인들이 거주했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악고와 티베리아에서 거주했다는 기록도 있다.

하마스가 주장하는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할 권리는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그 땅을 조상들의 고토로 주장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성을 두고 학문적인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성서 미니말리즘 학파도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던 BC 5세기 “예후드”의 실체는 인정한다(Davies 1992). 즉 3000년 전의 다윗과 솔로몬 왕국은 전설일 수 있지만 2500년 페르시아 통치 하의 유대 지방은 역사적인 실체였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할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팔레스타인(Palestine)이라고 불리는 지명은 하마스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민족의 혈통적 정체성이나 그들의 고유한 문화나 그들의 삶의 터전을 정의하는 특정 용어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보편적으로 그들의 언어 가운데서 만들어진 자신들의 고유한 용어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그 지역을 사는 사람들의 공용어인 아랍어에서 발음할 수 없는 단어이다. 28개의 아랍어 알파벳에는 팔레스타인의 ‘P’를 발음할 수 있는 알파벳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랍어로 팔레스타인을 فلسطين(Filastin)이라고 부른다. 자신들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는 용어가 자신들이

¹¹ [https://en.wikipedia.org/wiki/Demographic_history_of_Palestine_\(region\)](https://en.wikipedia.org/wiki/Demographic_history_of_Palestine_(region)) (검색일: 2024. 12. 28)



대대로 살아온 땅의 이름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팔레스타인은 하마스가 주장하는 자신들의 고유한 영토의 명칭이 아니다. 본래 자신들의 고유한 영토가 아니라면 팔레스타인 전역에 대한 그들의 요구는 역사적 권리에 기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유대교 율법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적대는 ‘부당한 증오’(שנאת תּוֹמַיִם 신아트 힌남)로 여겨진다. 신아트 힌남은 바벨론 탈무드에 처음 등장하는데(요마 9B), 솔로몬이 세웠던 제1성전은 우상숭배와 행음과 살인 때문에 파괴되었지만 제2성전은 신아트 힌남 때문에 파괴되었다고 기록한다. ‘신아트 힌남’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 간의 증오를 의미하며 그것은 주로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다.¹² 즉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이나 박해를 의미하는 반유대주의(Antisemitism)는 흔히 두 갈래로 나누어 설명된다: 1) 종교적 반유대주의, 2) 인종적 반유대주의. 유대교를 거부하는 종교적 반유대주의에는 일말의 탈출구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유대인이 유대교를 떠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그는 더 이상 종교적 반유대주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종적 반유대주의는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를 표현한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적대 정책은 인종적 반유대주의의 한 흐름으로 이해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역사적으로 유대교에 대해서는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 둘 다 관용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교가 아브라함 종교의 시초가 되는 유대교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들의 뿌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는 종교적 반유대주의가 되지 못한다. 하마스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이스라엘 축출이 의미하는 바는 10월 7일 테러 공격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유대인 대학살이었다. 곧 이스라엘이라는

¹² <https://www.morfix.co.il/en/שנאת תּוֹמַיִם> (검색일: 2024. 5. 13).



국가의 해체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IV. 이스라엘의 하마스 응전과 유대교 율법적 논리

하마스의 공격에 대응하여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안으로 진입하는 작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6년 이후 가자지구의 하마스 공격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적어도 세 차례의 큰 군사작전을 벌였다: Operation Cast Lead (2008-9), Operation Pillar of Defense (2012), Operation Protective Edge (2014). 하지만 10월 7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그 규모와 방식에서 이전의 경우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다른 차원의 도전에 대해 다른 차원의 응전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은 심각한 국제 여론의 악화를 야기했고 그 여파는 친팔레스타인 내지 반이스라엘 거리 시위뿐만 아니라 지구촌 여러 대학의 캠퍼스 시위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규모 무차별적 하마스 응징에 대한 이스라엘 내부의 반대 여론도 폭 넓게 형성되었다.

베냐민 네타냐후(בנימין נתניהו, 1949~) 수상 중심의 이스라엘 전시내각의 판단과 결정도 심각한 질문들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이런 식의 응전이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장단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세계 여론의 확산과 미국 내에서도 널리 퍼지기 시작한 반유대적 정서는 회복 불능의 수준에 이른 느낌마저 주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국민들도 이스라엘 전시내각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보복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았고, 국민 절반 이상은 전쟁을 야기한 상대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지지했다.¹³ 상당수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은 부패와 비리 혐의 재판으로 정치적

¹³ <https://www.timesofisrael.com/over-half-of-israelis-say-theyre-let-down->

위기에 내몰린 네타냐후 개인의 의도적인 정치적 노력으로 현 상황을 진단한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네타냐후가 그 이전부터 취해 왔던 정치적 입장 및 본인과 그의 가정의 국가를 위한 봉사 경력을 고려해 본다면 이스라엘 수상으로서 그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지도력이 필자에게는 개인적인 위기 모면 차원 이상의 것으로 보인다.¹⁴ 이스라엘 전시내각의 제반 결정들도 국가 안보를 위한 특정한 원칙과 논리를 따라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대응 방식과 그 이면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인지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임을 천명한다는 점이다.¹⁵

1948년 5월 14일 공표된 이스라엘 독립 선언서(מגילת העצמאות)는 영국의 지배가 끝난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의 영토이자 고대의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을 계승한 국가로 선포했다. 이스라엘 독립 선언서의 첫 단락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영적, 종교적, 정치적 성격이 형성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고, 국가적 삶을 살았으며, 국가적이고 보편적인 문화 자산을 창조했으며, 전 세계에 영원한 책 중의 책을 물려주었다”라고 명시한다. 이스라엘 독립 선언서는 1948년 10월 1일까지 제헌의회에서 헌법이 제정되도록 규정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단일한 성문 헌법 없이 11개의 기본법으로 국가 조직과 권력 구조 및 기본권 등 헌법적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¹⁶ 11 기본법 중 하나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חוק-יסוד: כבוד האדם וחירותו)는 “이스라엘에서 인간의 기본권은 인간의 가치, 생명의 신성함, 자유인 됨의

by-war-cabinets-handling-of-hamas-conflict/ (검색일: 2024. 5. 7)

¹⁴ 네타냐후와 그의 두 형제는 모두 이스라엘 최고의 특수부대로 인정받는 ‘사예레트 마트칼’ 출신이다. 그의 형 요나탄 네타냐후는 1976년 엔테베 인질 구출작전의 현장 지휘자로 유일하게 전사했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

¹⁵ 1985년 11 기본법 중 “국회”의 개정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이 더해졌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유대 민주주의 국가”로 정의된다.

https://en.wikipedia.org/wiki/Jewish_and_democratic_state (검색일: 2024. 5. 7).

¹⁶ [https://overseas.mofa.go.kr/il-](https://overseas.mofa.go.kr/il-ko/brd/m_11471/view.do?seq=662572&srchFr=&srchTo=&srchWor)

[ko/brd/m_11471/view.do?seq=662572&srchFr=&srchTo=&srchWor](https://overseas.mofa.go.kr/il-ko/brd/m_11471/view.do?seq=662572&srchFr=&srchTo=&srchWor) (검색일: 2024. 5. 7)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독립 선언의 원칙에 따라 존중될 것”으로 기본 원리를 규정한다.¹⁷ 이 기본법의 목적은 1a조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이 기본법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고 유대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가치를 기본법으로 정하는 것이다.”¹⁸

이 조문이 언급하는 ‘유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가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기본법의 서두에 등장하는 “인간의 가치”, “생명의 신성함”, “자유인” 등의 어휘에 암시된다. 이 용어들은 근본적으로 유대교 표현들로 미쉬나 탈무드에 나오는 것들이다.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유대교’와 ‘유대성’과 분리될 수 없다. 헌법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기본법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유대인의’, ‘유대교의’, ‘유대적’ 사상이다. 그 핵심은 ‘토라’로 불리는 유대교 율법과 그 정신이다. 실제로 하마스의 공격 직후 구성되었던 전시내각 안보회의에는 네타냐후 수상의 초청으로 이스라엘 최대 종교정당 샤스(שי"ס Shas)의 당수 아리에 데리(אריה דרעי)가 참관인의 자격으로 배석했다. 그것은 전시내각의 결정 사항들 가운데 유대교 율법 조항이나 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천 가지가 더 되는 율법 조항이나 율법적 원리 및 사상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가 이번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¹⁹

¹⁷ כתיבת הסדר של האם בישראל מושתתת על הדתה בדרך האם, בקדשת חייו ובזיווהו בן-חורין, חזן כוסמן, ברוח העקדנות שבחסדה על הקמת מדינת ישראל.

https://www.nevo.co.il/law_html/law00/70320.htm (검색일: 2024. 5.7)

¹⁸ חוק-סדר זה, מטרתו להגן על כבוד האדם וחרותו, כדי לשגן בזוק-סדר את ערכיה של מדינת ישראל כמדינה יהודית ודמוקרטית.

¹⁹ 흔히 토라라고 불리는 구약성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성문율법은 모두 613가지이다. 이 조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전율법은 미쉬나에 모두 524장 4192 조항으로 정리된다.



1. 피의 보수(גְּאוּלַּת דָּם) 게올라트 담)

과도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대응은 일면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다. 1948년 건국 이후 이스라엘은 MENA 지역에서 적대적인 절대적 다수에 둘러싸인 소국이였다. 1979년 남쪽의 이집트, 1994년 동쪽의 요르단, 그리고 이후 몇몇 중동국가들과 수교를 이루었지만 그 상황은 아직까지 크게 변화되지 못했다. 하나로서 적대적인 주변의 수습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생존 전략은 크고 작은 모든 종류의 도발에 대해서 빠짐없이 매번 강력하게 보복하는 것이었다.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는 대응으로 상대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생존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하마스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은 이 방식 이상의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상황에 대한 율법적 대응 논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대교 율법에서 무죄한 민간인의 피살과 납치는 특이한 상황과 사건이 된다. 사람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 구약성서는 분명한 원리와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9:6)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גְּאוּלַּת דָּם) 고엘 하담)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גְּאוּלַּת דָּם) 고엘 하담)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민수기 35:17-21).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 흘림의 대가는 피 흘림이었고, 사람을 죽인 자의 피는 죽임을 당한 자의 친척을 통해서 흘러져야 했다.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피의



보수자는 죽음을 야기한 당사자를 죽일 수 있었다. 당사자가 요르단강 동편과 서편에 있는 여섯 개의 도피성 중 하나로 들어가면 ‘고엘 하담’의 직접적인 보복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도적인 살인의 경우는 도피성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행위 율법이 ‘게올라트 담’(피의 보수)이다. 피의 보수는 유대 종교법원의 판단에 따라 죽임을 당하거나 살해당한 자의 친척에게 그를 죽인 자나 살해자를 죽임으로써 그 죽은 자 또는 피살자의 피에 대해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²⁰

피의 보수 원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첫 번째 의무로 규정한다. 이스라엘은 유대교 율법 정신에 따라 무죄한 자국민의 피를 보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 건국 이후 이스라엘 시민들을 향한 크고 작은 테러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많은 피 흘림이 있었다. 테러로 인한 자국민들의 희생에 대해 이스라엘은 일관된 대처를 해왔다. 그것은 테러 책임자를 찾아내어 현장에서 응징하거나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는 것이었다. 10.7 하마스의 테러 공격은 그 규모와 행태에서 전례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간인 학살이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미래에도 계속될 하마스 공격의 규모와 잔혹성을 예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피 흘림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피의 보수는 발생한 피 흘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피 흘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규모와 방식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하마스를 뿌리뽑는 것이다. 문학적 수사라 아니라 실제로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군사작전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 목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타협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온 세계가 반대하고 가장 우방인 미국이 반대했어도 이스라엘은 가자 남부 라파로까지 진격할 수밖에 없었다. 하마스를 완전히

²⁰ <https://www.hamichlol.org.il/> הלכה_גאולת_דם (검색일: 2024. 5. 7). 피의 보수는 유대교 율법서에서 처음 나타나는 원리가 아니다. 고대 근동에서 오늘의 아랍 세계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진 원리이다. 피의 보수가 양자 간 분쟁의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제거하는 것이 무죄한 자국민 희생자들의 피를 보수하는 것이라면 유대교 율법상 이스라엘 국가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포로 해방(פדיון שבויים) 피디온 쉘부임)

국제사회의 비난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비인도적으로 보이는 군사작전을 지속한 이스라엘의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되는 율법적 원리는 ‘피디온 쉘부임’(포로 해방)이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율법이 613 가지임을 정리했던 중세 유대 랍비 람밤(Moshe ben Maimon, 1135-1204)은 포로 해방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했다. 포로가 된 동족을 해방시키는 것은 가난한 동족을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 우선이며, 포로 해방을 간과하는 것은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닫지 말라’는 계명(신명기 15:7), ‘네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웃을 죽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라’ 또는 ‘네 이웃이 위협에 처했을 때 보고만 있지 말라’는 계명(레위기 19:16; 이 구절에 대한 라쉬[Rabbi Shlomo Yitzchaki, 1040-1105]와 이븐 에즈라[Abraham ben Meir Ibn Ezra, 1092-1167]의 해석),²¹ ‘중으로 팔린 동료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계명(레위기 25:53)을 어기는 것이며 또한 ‘가난한 형제에게 도움을 주라’는 계명(신명기 15:11), ‘가난한 형제로 너와 함께 살게 하라’는 계명(레위기 25:36),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레위기 19:18)을 취소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포로 해방보다 더 위대한 계명은 없다고 람밤은 재차 언급한다.²²

포로 해방의 계명과 관련하여 랍비들은 두 정황을 언급한다: 범죄의 문맥에서 동족 유대인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는 경우. 첫 번째 경우에는 두 가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 과도한 몸값을 지불하지

²¹ <https://www.sefaria.org/sheets/172297?lang=bi> (검색일: 2024. 5. 8).

²² <https://www.toraland.org.il/משפט/אקטואליה-במשפט/פדיון-שבויים/> (검색일: 2024. 5. 8)



말 것, 2) 무력을 동원하여 구출하지 말 것. 과도한 몸값이 지불될 경우 유대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는 것과 더불어 유대인들을 납치하는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염려 때문이고, 한번 무력으로 구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 포로에 대한 결박과 감시가 더 심해져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시 포로의 경우는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테러로 납치당하는 것은 전쟁의 일부로 여겨지며 전시 상황에서 포로로 붙들리는 것과 동일시된다. 전시의 유대인 포로 해방은 구출 노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가에 제한이 없으며 무력의 사용에도 제한이 없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납치했다. 유대 국가 이스라엘은 납치된 자국민들을 구출해야 하는 율법적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살아 있는 포로는 해방시켜야 하고 죽은 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묻히도록 **קבורה בישראל** [크부라 베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에서의 장례)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마지막 한 사람을 해방하거나 찾아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중간에 그만 둘 수 없는 이유가 된다.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한 포로는 100여명으로 알려진다. 그 중에 수십 명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포로 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과도한 요구에도 응하게 되겠지만 마지막 한 사람을 데리고 올 때까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의 실례가 이를 보여준다. 2006년 가자 지역 근무 중에 납치되었던 이스라엘 사병 길야드 샬리트(**גלעד שליט**, 1986-)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5년 간 노력했던 이스라엘은 2011년 그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1027명의 팔레스타인 포로를 석방하는 결단을 했다.²³ 10.7 하마스 테러 공격을 기획했던 핵심 인물로 알려지는 야흐야 신와르(**يحيى السنوار**, 1962~2024)는 그때 풀려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중 한 명이었다. 1986년 레바논 상공에서 피격되어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공군 항해사 론 아라드(**רון ארד**, 1958-?)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그의 생사 파악을

²³ https://he.wikipedia.org/wiki/גלעד_שליט (검색일: 2024. 6. 9)



위해서 노력했다.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이라도 그의 생사가 확인된다면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하여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하마스에 납치되어 있는 포로 구출에 도움을 제공하는 가자시민에게 이스라엘은 약 70억원의 현금과 추가적인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피디온 쉘부임의 원리를 따라 하는 일이다.

하마스 테러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 응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올라트 담과 피디온 쉘부임 간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그것은 피의 보수가 포로 해방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포로 해방의 원리가 피의 보수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납치된 포로의 해방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정부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비난하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 긴장을 해소하는 나름의 원칙이 존재한다.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평시에는 개개인 생명의 가치가 우선이다. 하지만 전시나 공동체의 위기시에는 개인보다 공동체의 운명이 우선으로 여겨진다.²⁴ 이스라엘이 납치된 포로의 해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포로의 해방이 공동체의 운명 곧 국가 안보를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V. 나가는 말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지역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이 본래는 이스라엘 북부지역에 대한 헤즈볼라의 공격과 동시에 일어나기로 계획되었다고 회자된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에게서 동시에 공격을 받아 두 개의 전선이 남북으로 형성되었다면 1973년 제4차중동전쟁의 경우처럼 쉽지 않은

²⁴ 이 사상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면 신약성서 요한 복음 11장 50절을 보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도전에 직면했을 지도 모른다. 뒤 늦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헤즈볼라가 왜 하마스와 더불어 동시에 공격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의문이다.²⁵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의 성격을 잠시 고찰해보고 이스라엘의 응전을 유대교 율법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다. 이제는 하마스의 입장과 관점, 그 이면의 하마스 논리도 심도 있게 고찰되어야 할 듯하다. 양측의 관점과 논리를 비교해보면 작금의 중동 상황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평가는 좀더 분명해질 것이다.

[주제어: 하마스, 테러 공격, 이스라엘, 유대교 율법, 반유대주의]

²⁵ 한 이스라엘 라디오 방송은 이스라엘 시민들이 가자지구로 끌려가는 상황을 알고도 이스라엘 군이 그 쪽으로 긴급 동원령을 내리지 못한 것은 정확도가 높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북쪽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비하여 주요 예비군 병력을 북쪽 국경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참고문헌

- 글로벌K(2023). “우리는 왜 싸우는가... ‘이스라엘vs하마스 단독 인터뷰 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1243> (검색일: 2024. 8. 14).
- 김미향(2023), “하마스 성폭력”,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19284.html (검색일: 2024. 12. 28).
- 나무위키(2024). “테러”, <https://namu.wiki/w/테러>(검색일: 2024. 4. 19).
- 박형수(2024), “생식기 절단에 집단 강간까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119> (검색일: 2024. 12. 28).
- 위키백과(2024). “제네바 협약”, https://ko.wikipedia.org/wiki/제네바_협약(검색일: 2024. 4. 19).
- 위키백과(2024). “하마스”, <https://ko.wikipedia.org/wiki/하마스>(검색일: 2024. 5. 2).
- 장지향, 성일광(202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분석과 전망”, 『이슈브리프』 2023-25. 아산정책연구원.
- 주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2008). “이스라엘 개관: 이스라엘의 헌법체계 및 운용”,
https://overseas.mofa.go.kr/ilko/brd/m_11471/view.do?seq=662572&srchFr=&srchTo=&srchWor(검색일: 2024. 5. 7).
- BBC News (2009). “Q&A: Gaza conflict”,
http://news.bbc.co.uk/2/hi/middle_east/7818022.stm(검색일: 2024. 5. 2).
- Davies, Philip R. (1992). *In Search of 'Ancient Israel'*, Sheffield: Bloomsbury T&T Clark.
- Hamiklol (2023). “גאולת דם”, [https://www.hamichlol.org.il/הלכה\(דם_גאולת_דם\)](https://www.hamichlol.org.il/הלכה(דם_גאולת_דם))(검색일: 2024. 5. 2).



2024. 5. 7).

Itamar Rabinovich (2023), “This Is the First Iranian–Israeli War,” Haaretz, Oct 26.

Nevo (2023). “חוק-יסוד: כבוד האדם וחירותו”,

https://www.nevo.co.il/law_html/law00/70320.htm(검색일: 2024. 5.7).

Sefaria (2024). “לא תעמד על דם רעך”,

<https://www.sefaria.org/sheets/172297?lang=bi>

(검색일: 2024. 5. 8).

StandWithUsUK (2024). “Share the Truth”,

<https://x.com/StandWithUsUK/status/1780124561503043972>(검색일: 2024. 8. 18).

The Times of Israel (2024). “Poll: Over half of Israelis feel let down by war cabinet’s handling of Hamas conflict”,

<https://www.timesofisrael.com/over-half-of-israelis-say-theyre-let-down-by-war-cabinets-handling-of-hamas-conflict/>(검색일: 2024. 5. 7).

Toraland (2024). “פדיון שבויים”,

<https://www.toraland.org.il/-/פדיון-במשפט/אקטואליה-במשפט/פדיון-שבויים>(검색일: 2024. 5. 8).

Wikipedia (2024), “Demographic History of Palestine (region)”,

[https://en.wikipedia.org/wiki/Demographic_history_of_Palestine_\(region\)](https://en.wikipedia.org/wiki/Demographic_history_of_Palestine_(region)) (검색일: 2024. 12. 28).

Wikipedia (2024). “Jewish and democratic state”,

https://en.wikipedia.org/wiki/Jewish_and_democratic_state(검색일: 2024. 5. 7).

Wikipedia (2024). “Terror”,

[https://en.wikipedia.org/wiki/Terror_\(politics\)](https://en.wikipedia.org/wiki/Terror_(politics))(검색일: 2024. 4. 19).



Wikipedia (2024). “**אמנת חמאס**”, https://he.wikipedia.org/wiki/אמנת_חמאס(검색일: 2024. 5. 10).

Wikipedia (2011). “**עסקת שליט**”, https://he.wikipedia.org/wiki/עסקת_שליט(검색일: 2024. 6. 9).

Wikipedia (2024). “**שיגורי רקטות מרצועת עזה לישראל**”,
https://he.wikipedia.org/wiki/שיגורי_רקטות_מרצועת_עזה_לישראל#cite_note-סיקור_ההתקפות_של_BBC_2009-1-ב(검색일: 2024. 5.2).

논문접수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일: 2025년 1월 14일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14일